

# 신문사 사람들

언론중재위원회 NEWS

P R E S S   A R B I T R A T I O N   C O M M I S S I O N

# 07

2016 + July  
Vol. 193

신나는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7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대한민국은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됩니다.  
언론과 국민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웃음소리 가득한 행복 미소를 전해드립니다.





119 시민수상구조대 임정에 대원

## 물놀이하는 시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물놀이 계절인 여름이 되면 더욱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물놀이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상구조대입니다.  
한강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임정에 씨는 119 시민수상구조대원입니다.  
뜨거운 피약벌에서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 쉽지만은 않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절로 기운이 납니다.  
오늘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서 수고하시는 119 시민수상구조대원 여러분께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언론중재위원회는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국민과 언론 간 분쟁을 조정과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곳입니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언론피해 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 절차와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pac.or.kr](http://www.pac.or.kr)

언론중재Eye-Net [people.pac.or.kr](http://people.pac.or.kr)

블로그 [pacblog.kr](http://pacblog.kr)

페이스북 [facebook.com/pacnews](http://facebook.com/pacnews)

# Contents

2016 July Vol.193

## 04 인터뷰

민병철 / (사)선플운동본부 이사장

## 06 미디어트렌드

팩트체크-정치적 주장에 대한 사실 검증 필요

## 07 중국 언론계 동 시찰 후기

언론조정·중재제도 도입,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중국의 학자들

## 08 문화토픽

비제 오페라 '카르멘'

## 09 세상읽기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

## 10 언중노트

반듯한 노신사의 잇힐 권리

## 11 특별기고

'언중위' 상징 MOST

## 12 여행수첩

리우에서 쿠리치바까지 브라질 여행

## 14 위원회 NEWS

## 15 조정중재 사례 / 『4년째 사람』 100자평

발행인 박용상

편집인 권우동

발행일 2016년 7월 1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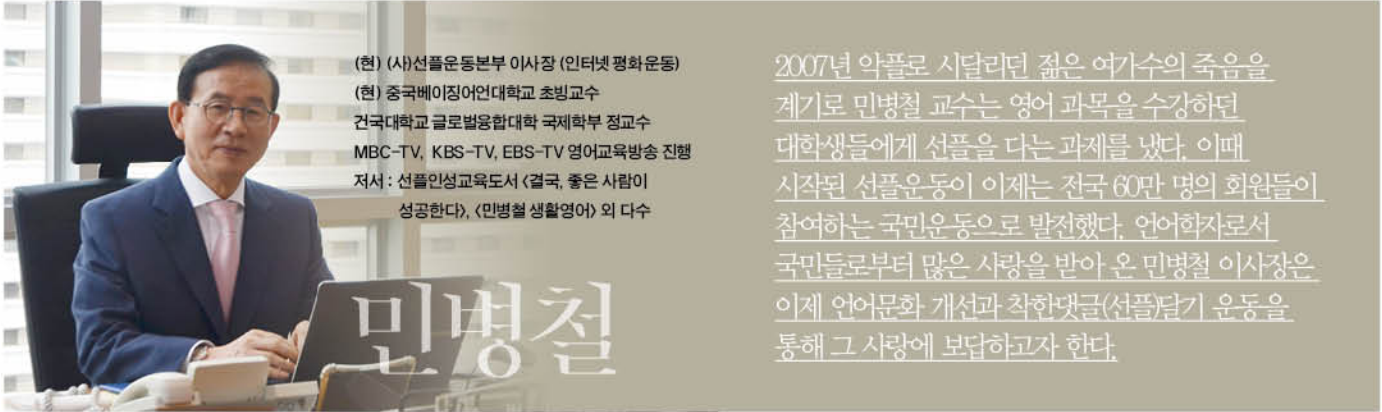
구독신청 홍보팀 TEL 02-397-3082~4

편집·디자인 한라에드플러스(주) TEL 031-247-5141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악플로 상처받지 않을 권리>도 중요합니다



(현) (사)선플운동본부 이사장 (인터넷 평화운동)  
(현) 중국베이징어언대학교 초빙교수  
건국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국제학부 정교수  
MBC-TV, KBS-TV, EBS-TV 영어교육방송 진행  
저서: 선플인성교육도서 <결국,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 <민병철 생활영어> 외 다수

2007년 악플로 시달리던 젊은 여가수의 죽음을 계기로 민병철 교수는 영어 과목을 수강하던 대학생들에게 선플을 다는 과제를 냈다. 이때 시작된 선플운동이 이제는 전국 60만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발전했다. 언어학자로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온 민병철 이사장은 이제 언어문화 개선과 착한댓글(선플)달기 운동을 통해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한다.

### Q. 선플운동본부가 추진해 온 선플달기 운동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선플은 한자의 착할 선(善) 자와 영어의 Reply의 합성어입니다. '선플'은 착한 댓글(good comments), 긍정적인 댓글(positive comments)로, '악플(malicious comments)'의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플 달기는 무조건 칭찬의 댓글만을 달자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비판의 글은 수용하지만 근거 없는 비난과 허위 사실, 욕설 등을 하지 말고, 악플로 인해 상처받는 분들에게 응원과 희망을 주는 댓글을 달아 사회에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선플운동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가족, 친구, 직장동료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악플의 폐해와 선플의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 활동, 교육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Q. 국민들에게는 실용영어 교육자로 널리 알려져 있으신데, 선플달기 운동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A. 2007년 초, 한 젊은 여가수가 악플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는 보도를 접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해 봄 학기에 제 영어수업을 듣는 570명의 대학생들에게 악플로 인해 고통받는 10명의 유명인들의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방문해서 악플을 자세히 읽어 본 다음, 이 사람에게 근거 없는 악플을 달지 말아야 할 이유와 악플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 내용의 선플을 달아주고 그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과제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악플이 달린 연예인들의 블로그와 홈페이지에는 순식간에 5,700개의 아름다운 선플

이 달리게 되었고, 이 과제를 통해 학생들은 악플의 폐해와 선플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선플운동이 시작된 계기입니다.

### Q. 선플달기 운동을 진행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으신지요?

A. 대전에 있는 우송중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 중에 버스 전복 사고가 있었는데, 그 중 한 학생이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힘내라 재운아, 학교 가자, 너는 꼭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선플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이 학교 모든 학생들이 선플을 달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학교에서 악플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재운이를 위해 선플달기를 하는 과정에서 악플의 폐해와 선플의 필요성을 학생들 스스로가 깨달았던 것이죠. 현재 중국 웨이보와 함께 한·중 네티즌들이 임재운 학생이 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 가을에는 임재운 학생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작은 선플 음악회'를 재운 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 Q. 2016년 중국 <웨이보>에서 선정된 '공익유명인사 랭킹' 17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중국 등 외국에서의 구체적인 활동도 소개해주세요.

A. 2008년과 2013년 중국 쓰촨성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여 7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때, '중국 쓰촨성 피해 주민들을 위한 추모와 위로의 선플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게시된 선플 1만여 개를 모아 '선플 추모집'을 만들어 중국 CCTV에 전달하고, 선플 음악회를 통해 모금한

기금을 야안시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한·중 청년선플사이버공공외교단을 발족하여, 양국의 귀감이 되는 인물이나 문화를 소개하고 상호 응원하는 글로벌 선플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도 2014년 4월 한국의 세월호 침몰 사고 때 추모 사이트를 개설하여 5만여 명의 중국 네티즌들이 추모의 뜻을 밝혀 왔으며,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최대 SNS 웨이보에서 실시간 '햇빛(선플) 토론'을 개최하여 많은 중국 네티즌의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세계인터넷대회에 참석했고 당시 중국 관영 CCTV를 통해 선플운동을 소개하였으며, 올해는 북경과 청도지역 대학생들 및 교직원들에게 선플 특강을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Q. 19대 국회의원과 '선플정치운동'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 이외에도 연예인 등 미디어를 통해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인사들의 참여가 있는지요?**

**A.** 지난 19대 국회의원의 98%인 294명이 선플운동에 동참한다는 서명을 하였고, 300여 명의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 학생들이 응원과 배려의 선플언어를 사용하는 국회의원들을 선정한 후 '국회의원 선플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선플상을 수상한 국회의원들은 청소년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더욱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에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가수, 아나운서, 개그맨 등 방송인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선정한 방송인 선플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시상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인들이 선플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선플운동을 통해 일어난 변화를 체감하시는지요?**

**A.** 2007년 초 제가 가르치는 한반의 대학생들로부터 작게 시작된 선플운동이 이제는 전국 60만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악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지, 선플이 무엇인지, 선플을 달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하나하나 설명하고 전국 각지를 찾아다니며 선플 선언식

과 선플 거리 캠페인을 전개해야 했습니다. 현재 선플운동에 참여하는 학교와 단체가 7천여 개에 이르고 선플운동본부에 등록된 지도교사가 2천 6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플운동이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Q. 악플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A.** 먼저, 인성교육을 들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은 어린학생들부터 선플운동과 같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활동을 실천하여 몸에 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강력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요, 특히 인터넷을 통해 경제적 수익을 얻는 인터넷 기업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현재, 악플 삭제를 요청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악플이 삭제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 악플 확산을 막는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기업들이 악플 확산을 막는 역할을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선 블라인드처리, 후 검토제도'를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플을 달고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악플로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글에 악플이 달렸을 때 그 악플을 쓴 사람만이 그 글을 지울 수 있는데, 악플을 받은 사람이 직접 지울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조정과 증재를 통해 해결하는 기구입니다. 향후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지요?**

**A.** 우선 국민들에게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가 나면 이후에 정정보도 등이 이루어져도 당사자들은 이미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후입니다. 언론에서는 보다 신중히 보도해야 하겠고 언론중재위원회에도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억울한 국민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 | 이진숙(홍보팀장) · 정리 및 사진 | 최은진(홍보팀 차장보)

## 팩트체크: 정치적 주장에 대한 사실 검증 절실

# FACT-CHECKING

20대 국회가 개원했다. 정치인들은 선거 유세장을 떠나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여전히 국민은 정확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는 정치인들의 말을 쫓으며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정치인의 말을 국민에게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이다. 그러나 언론의 글을 쫓는 것도 때로는 매우 혼란스럽다. 이러한 혼란은 사회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신뢰 자본의 가치 추락을 의미한다. 말과 글에 대한 불신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신뢰 자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바로 '팩트체크'의 출발점이다.

정치인과 언론인의 말과 글은 '팩트'와 '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언론의 주장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 공론장의 기본 전제이기도 하다. 서로 다른 주장들이 공평한 게임의 규칙 속에서 결합하고, 그 결과 국가 정책이 수립, 실행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문제는 정치적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과연 무엇인가에 있다. 첫 번째 유형의 정치적 주장은 팩트의 근거가 없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주장이다. 즉 특정한 정치적 주장의 합리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수용자가 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아니고, 때에 따라 지극히 감성적인 반응을 하기 때문에 팩트가 없는 주장들도 정치판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유통되곤 한다.

두 번째 유형의 주장은 특정한 팩트를 바탕으로 한 주장이지만 팩트와 주장의 연관성이 매우 낮은 경우이다. 즉 부적합한 팩트가 정치적 주장에 힘을 실어 주며, 나아가 하나의 실효성 있는 정보로 자리 잡게 되는 경우이다. 두 번째 유형의 주장이 갖는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매우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다. 경제, 환경, 과학, 복지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보통 국민의 눈에는 그럴듯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유형의 주장은 적합한 팩트를 근거로 하는 주장이다. 가장 이상적인 유형의 정치적 주장이다. 그 팩트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도 역시 전문가의 식견이 있어야 한다.

'팩트체크'의 목적은 우리 사회에 유통되는 다양한 주장들에 대한 팩트와 주장의 관계에 대한 검증이다. 매우 예민한 정치적 사안들을 둘러싼 팩트와



주장의 관계 구조에 대한 매우 치열한 검증의 과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팩트체크는 단순히 누군가 이야기해 언론에 회자된 사실 여부의 단순 검증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도로 전문화된 논증 과정이다.

팩트체크는 미국에서 1992년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발언의 검증에서 시작된 탐사 언론의 한 영역이다. '폴리티 팩트(politifact.com)', '팩트체크(Factcheck.org)', '팩트체커(The Fact Checker)' 등이 많이 알려진 미국의 대표적 팩트체크 시스템들이다. 언론사가 주관하거나 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적 팩트체크 시스템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오마이뉴스에서 시작한 오마이팩트, 그리고 JTBC의 팩트체크 코너 등이 팩트체크의 선구자로 보인다. 국민의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를 진작해 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출발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보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정치인과 언론의 정치적 주장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가 매우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팩트체크의 꽃은 역시 국가대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주장들의 근거, 즉 주장을 뒷받침하는 팩트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다. 미국 팩트체커들의 탐사 언론의 정신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팩트체크는 과다하고 오염된 정보 공해 속에서 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의 탐사 언론적 도전임과 동시에, 의미 있는 '정보환경 시민운동'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언론조정·중재제도 도입,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중국의 학자들



중국 국가신문출판관전중국 관계자 연담

중국학자와 기자들의 관심은 기대 이상이었다. 지난 5월 24일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이 중국 언론계 시찰(관련 기사는 『**한국경제**』 2016년 6월호 14쪽 참조) 중 베이징대학 신문방송학원의 초청으로 진행된 특강에 베이징대를 비롯하여 중국 전매대학, 베이징 사범대학 등에서 온 교수, 기자, 학생 1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어진 질문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첫째는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도와 절차 등에 관한 질문으로, 조정대상 범주에 블로그도 포함되는지, 조정중재를 거쳐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같은 사안에 대한 여러 중재부의 조정 결과가 상이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있는지, 신청할 때 비용이 드는지, 35년 동안 한국이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용해 올 수 있었던 근거로서의 공정성 및 실효성의 장치는 무엇인지 등등 제도 운용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질문들이 쏟아졌다.

나머지 질문들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특징을 고려한 새로운 피해구제 제도에 관한 것으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잊힐 권리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위법한 보도에 달린 악성 댓글의 책임 주체는 댓글 작성자인지 인터넷 언론사인지, 잘못된 복제 기사 등으로 인한 책임을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강요할 수 있는지, 복제 기사나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기술적인 방안들은 마련되어

있는지 등이었는데, 이러한 질문들은 새로운 피해구제를 위한 법 개정안을 준비하며 위원회가 고민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3년 전, 한국언론학회가 베이징대 신문방송연구회 회원 50여 명을 초청하여 학술행사를 개최하였을 때, 위원회도 참석하여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당시 베이징대 첸카이허(陳開和) 신문방송학원 교수는 중국에서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매우 많은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 손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겠다며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그다음 해인 2014년 위원회가 유럽과 아시아 등 15개국의 언론인과 학계 및 법조계 관계자 300여 명을 초청해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을 때, 중국 베이징대에서 참석한 쉬징(許靜) 교수는 박용상 위원장을 별도로 인터뷰하여 '상하이 저널리즘 리뷰' 2015년 제2호에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자세히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당시 영국의 언론 자율규제기구인 PCC가 이빨 빠진 호랑이로 비유되고 있던 것에 비해 이웃 국가 한국에서는 매우 독특한 언론분쟁해결기구인 이 제도를 30년이 넘게 잘 운용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쉬징 교수와 첸카이허 교수는 이러한 우리 제도와의 인연으로 이번 박용상 위원장의 베이징대 특강을 함께 적극적으로 주선하였다.

이번 중국 방문에서 언론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중국 학계와 행정기관의 입장 차가 현재로서

는 매우 크다는 점도 느꼈다. 언론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인 국가신문출판관전총국의 우상즈(吳尚之) 부국장은 중국에서의 언론분쟁은 법원 소송, 기자협회와 같은 기관의 업계 윤리, 그리고 각급 행정부가 언론보도 침해 사례를 접수하여 영업금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3가지 방안으로 잘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그러면서도 이번 위원회의 방문으로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자세히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매년 중국 기자단이 한국을 방문할 때면 위원회를 찾아 우리 제도에 많은 질문과 관심을 표명하곤 한다. 3~4년 전만 해도 중국의 포털사이트에 한국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기사가 전무하던 것에 비해, 이제는 그동안 위원회를 다녀간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와 이번 위원장의 특강으로 말미암아 위원회를 검색하면 등장하는 기사 리스트가 5~6페이지를 훌쩍 넘어가게 되었다.

1981년 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민주화와 함께 이 제도가 더 발전한 한국을 바라보며, 체제가 다른 중국에서도 그 가능성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진지하게 개진한 한 중국 법학자를 마주하니, 우리 제도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관심은 단지 학문적인 관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중국 베이징대학 초청 특강

## 비제 오페라 '카르멘'

- 사랑은 길들이지 않은 항마리새



사랑에는 여러 가지 빛깔이 있다. 그 사랑의 종류에 따라 따뜻한 오렌지빛이 되기도 하고 풋풋한 연분홍색이 떠오르기도 한다. 이제부터 얘기할 프랑스 오페라 '카르멘(Carmen)'의 주인공 카르멘에게 있어 사랑의 빛깔이란 절대적으로 붉은빛이다. 그것도 아주 강렬한 느낌이 드는 선명한 빨간색이다.

오페라 '카르멘'은 프랑스의 작곡가 G.비제(1838~1875)가 작곡해 1875년 파리에서 초연한 작품이다. 어머니가 피아니스트였던 비제는 천재성을 어릴 때부터 인정받으며 일찍이 주목받는 작곡가 생활을 시작했다.

드라마틱한 극의 구성과 음악 모두 높은 완성도를 가진 이 오페라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자주 공연되는 오페라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사랑받는 레퍼토리지만 막상 초연의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다고 전해진다.

먼저 여주인공 카르멘이 당시에는 멸시의 대상인 집사인 데다 최하층민인 담배공장의 여공으로 설정된 것이 문제였다. 고결한 신분이거나 지고지순한 오페라의 여주인공이 슬프게 눈물 흘리는 모습에 익숙했던 관객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었는데 주위의 시선에는 아랑곳없이 본능적

인 감정에만 충실한 거칠고 야성적인 카르

멘의 모습은 당시에는 보기

어려운 여성상이었다.

게다가 성실한

부사관인 돈 호

세를 뇌쇄적인

매력으로 유혹

해 탈영병에다 범죄

자로 만들어 놓고서

금세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버린다. 그녀가 부

르는 아리아 '하바네라

(Habanera)'의 가사처럼

'사랑은 길들이지 않은 자

유로운 새이고 잡았다고

생각해도 날갯짓하며 날아

가 버리는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카르멘의 사랑의 뒷에 걸려든 돈 호세는 군인 신분과 착하고 청순한 약혼녀까지 버리고 운명을 뒤흔돈 사랑에 빠져들지만 냉담하게 돌변한 그녀의 모습에 격분해 연인을 칼로 찌러 죽이고 자신도 파멸하고 만다.

비제는 당시 유행이었던 이국 정서를 자신의 오페라에 반영하기를 좋아했다. '카르멘'도 일반적인 유럽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스페인의 남쪽 끝을 배경으로 삼아 안달루시아의 작렬하는 태양과 뜨거운 공기가 작품 전반을 지배하도록 했다. 여기에 당시 스페인 식민지였던 쿠바에서 전해온 리듬과 춤까지 차용함으로써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이국적 정취가 넘치는 오페라를 만들었다. '하바네라'는 쿠바의 수도 아버나의 이름에서 비롯된 2박자 계열의 무곡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작품을 열정적인 분위기로 이끄는 것은 선명한 빨간색으로 무장한 카르멘의 이미지다. 카르멘의 농염한 매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작곡가는 이 특별한 여주인공의 성부를 메조소프라노로 설정했고, 소프라노 음색으로는 감히 흉내 내기 어려운 독특한 메조소프라노만의 매력을 극대화시켰다.

그녀가 메조가 아니었다면 특유의 관능미도, 거침없는 팜파탈로서의 표현도 것처럼 부각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보다 굵은 음색 탓에 오페라 역사에서 주로 여주인공인 소프라노의 어머니나 유모 혹은 하녀 같은 조력자에 머물거나 마녀나 비열한 연적 등 대립되는 역할을 맡아왔던 메조소프라노는 이 작품에서 당당한 자유분방함과 치명적 매력을 가진 여성적이고 독립적인 캐릭터로 거듭나게 되었다.

카르멘이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개성과 이국적인 정서를 보여주는 인물이라면 상대역인 돈 호세는 프랑스 오페라 고유의 특징을 살린 배역이다. 그는 카르멘에 대한 사랑에서 헤어날 수 없는 답답하고 우유부단한 존재로 그려지지만 사랑의 아리아 '꽃노래'에서 들려주는 우아함과 서정성은 프랑스 오페라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을 맛보게 해준다.

오페라 '카르멘'은 도덕과 관습 따위는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사는 여인의 이야기다. 무더운 이 여름, 한 번쯤 그런 일탈을 감행해 볼 용기가 있다면 도전해 보시길 바란다.



##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

6월 초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속옷과 수영복을 만들어 파는 미국 회사 에어리(Aerie) 얘기입니다. 이 회사는 광고·홍보 전략으로 2014년부터 '진짜 몸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몸매의 속옷 모델을 내세우고, 모델 사진을 전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뽀샵'을 하지 않은 것이지요. 보통 말하는 깡마른 환상적인 몸매의 모델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체구의 모델을 내세워 있는 그대로, 보정하지 않은 채 광고한 것입니다. 이 광고 마케팅 전략으로 연매출이 20% 이상 늘어났다고 하네요. '진짜 몸매' 전략을 활용하기 전까지는 판매 증가량이 6%에 불과했었다고 합니다. 보정을 거친 왜곡된 이미지가 아닌 진짜 모습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회사의 분석입니다. 실제 광고 사진을 보면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몸매입니다.

제품 판매량이 왜 늘었을까요. 소비자들의 어떤 내면의 욕구 또는 진정성이라는 감성을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인위적인 보정, 여성미에 대한 일방적 기준 강요, 겉모양 최우선주의, 남을 의식해야만 하는 부담감... 이런 것들에 대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갖고 있을 법한 거부감을 슬쩍 자극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존 잣대를 강요하는 주류적 시각에 대해 일종의 비주류의 욕구를 작동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종의 전략 목표였던 것입니다.

좀 다른 듯 비슷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요즘 특이한 형태의 동네 책방이 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 데다, 온라인 구매 활성화로 일부 대형서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책방이 문 닫을 정도로 어렵다는 것은 뉴스도 아니지요. 그런 서점 불황인데도 특이한 컨셉으로 운영하는

책방이 홍대 앞 등 일부 동네에서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는군요. 북카페 스타일로, 개인 서재 겸 보통 사람들의 휴식처 개념으로 또는 돈은 못 벌어도 자신이 하고 싶어서, 독립출판물을 취급하기 위해서...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누구도 서점으로 성공을 꿈꾸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든 가치를 물질적 성공에 두고 이를 향해 치닫는 세상의 주류적 가치와는 다른 길이라고 볼 수 있지요. 비주류의 주류 문화에 대한 반감이랄까, 아니면 다른 가치를 찾는 여유랄까,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온라인 거래로 폭풍 성장을 보이는 공룡기업 아마존도 지난해 11월 '아마존 북스'라는 이름의 오프라인 서점 1호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3곳을 열었는데, 앞으로 300~40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대 앞에서 두세 블록 떨어진 상수동이 뜬 지는 제법 됐습니다. 주택이었던 이곳에 소규모 카페, 자그마한 와인 집 등이 여러 곳 생기더니 젊은 이들이 자주 찾는 곳이 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창업으로 조명을 받은 곳이기도 하지요. 최근에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구도심이 활성화돼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나 자영업자들이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제법 상권이 형성됐습니다. 이런 카페 등이 인기를 얻는 이유도 어찌 보면 획일화된 기준에 맞춰서 사는 피로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 일상에서 소소한 여유를 찾고 싶은 마음 등이 작용해 서겠지요. 소규모 카페 등이 인근 합정동 망원동으로까지 넓혀지고 있다고 하니, 사람들이 찾기는 찾는 모양입니다.

이런 현상을 아직 어떤 흐름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 잣대, 획일적 기준, 거대 물

량주의, 인위적인 것, 남과의 비교, 타인 시선을 의식하는 삶 등등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 같습니다. 확대하자면 천편일률적 주류에 피동적으로 편입되기보다는 나의 내면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택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우리 사회는 그동안 성과지상주의, 효율성 극대화 같은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달려왔으며,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가치들만으로 더 진전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합니다. 그런 토대 위에 남들을 의식하지 않는 창의적 생각과 여유, 배려와 내면적 가치, 나눔 같은 요소들을 가치로 추가해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가 더 무게 있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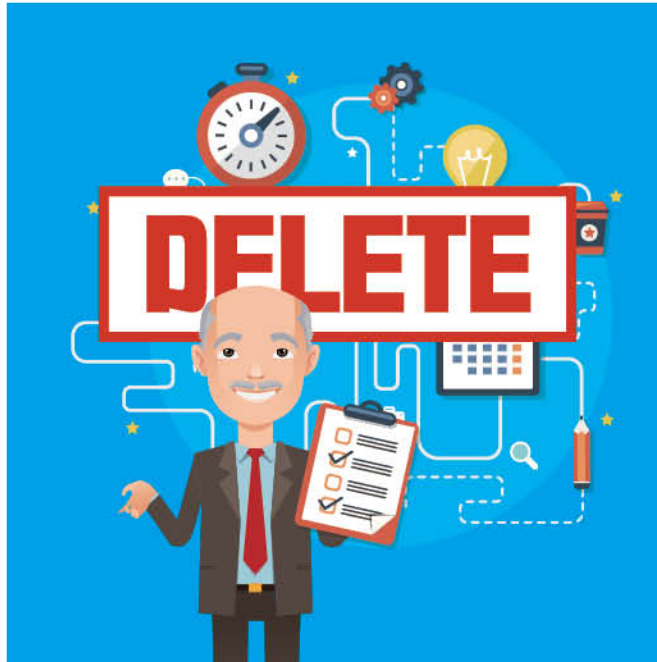
상수동 카페거리



소규모 카페가 늘어난 상수동 풍경

## 반듯한 노신사의 잊힐 권리

위원회를 방문한 A는 반듯한 인상의 노신사였다. 얼굴처럼 얌전히 생긴 서류 봉투 하나를 손에 들고 위원회를 찾아왔다. 그분의 이야기는 이랬다. 자기가 B에 돈을 빌린 적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생뚱맞게 C가 자신을 사기로 고소했고, 생각지도 못하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했다. 항소심에서 C가 제출한 증거가 위조임이 밝혀졌고, 다행히 무죄 판결이 난 게 대역섯 달 전이란다. A의 고민은, A가 십오 년 전쯤에 고위 공무원이었던 이유로 그가 휘말린 1, 2심 재판 결과가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고 포털에서도 이 보도들이 손쉽게 검색되는 것이었다. A는 기사 삭제까진 어렵더라도 포털에서만



이라도 검색이 되지 않게 하고 싶어 했다. 여기저기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어서 몹시 피로한 기색이었다.

“70년 가까운 일평생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이번 일 전까지 법원에 발을 들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에 대해 송사 뉴스가 제일 앞에 뜹니다. 무죄 선고 보도가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제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무죄 판결이 보도됐으니 괜찮지 않으나’라고 말하기가 힘들기도 했다. 유무죄와 상관없이 사기죄에 휘말렸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평판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위험은 사실이기도 했다. 평범한 우리는 불법적이고 시끄러운 일에 연루된 자체만으로 그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지 의심의 눈길을 보내곤 하기 때문이다. A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차라리 재판 내용이 자세하게라도 보도가 됐으면 덜 억울할 것 같은데, 대부분 단신으로 처리되어 더 억울하다고 했다.

모든 정보가 디지털로 기록되면서, 아날로그 시절 같으면 금방 잊힐 보도들이 이제는 없어지지 않고 인터넷 세상에 늘 상시 대기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제는 클릭 한 번이면 언제든 쉽게 ‘재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세상의 변화 탓에, ‘잊힐 권리’와 관련한 상담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일전에는, D가 자녀의 혼사를 앞두고 포털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더니, 90년대 중반 보도된 탈세 기사가 뜬다며, 기사 제목에 있는 자신의 이름을 지울 방법이 없는지 문의해왔다. 언론사 홈페이지의 원래 기사에는 D의 이름이 없고 포털 화면에 뜬 기사 제목에만 실명이 남아있는 특이한 경우여서, 포털 담당자에게 이를 설명하며 삭제를 부탁하니, 금방 삭제해 주었다. 이후 D는 살아갈 힘을 얻은 것 같이라며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해왔다. ‘살아갈 힘’이라니, 너무 거창한 인사를 받은 것 같기도

했지만, 당사자에게는 중차대한 일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괜히 마음 한 편이 뿌듯해진 건 부인하지 못하겠다.

‘잊힐 권리’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인류의 특권이며 축복이고, 자칫 잊힐 권리의 강화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염려는 당연하다. 이에 학계는 세밀하고 균형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필요함을 심분 이해하면서도, 개인을 상담하다 보면 가슴이 앞서는 순간들이 있음은 한편으로 어쩔 수가 없다. 필자 아버지보다 연세가 많으신 노신사 분이 열심히 살아왔을 지난날들을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해보았다. 어쩌면 형사 소송 관련 기사를 덮을 다른 좋은 뉴스거리가 그분 인생에 다시는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시간이 흘러 A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닌 후에도, 사람들은 포털에서 손쉽게 A에 대해 검색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포털 검색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유연한 기준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미 무죄로 밝혀진 A의 범죄 혐의에 대해 한정 없이 모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위원회를 나서는 노신사의 발걸음이 쓸쓸해보였다.

## ‘언론중재위원회’ 상징 MOST



이 책의 앞표지 제호는 『**언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론’과 ‘사람’ 사이에 다리(교량)가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심벌마크입니다. 이를 보면 영화 한 편이 생각납니다.

미국 감독 보비 가라베디안이 체코에서 촬영해 2003년 개봉한 29분짜리 짧은 작품입니다. 제목은 「MOST」인데 체코어로 ‘다리’라는 뜻입니다. 그해 아카데미상 단편영화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으며 팜 스프링스 국제영화제에서 수상도 했습니다.

주인공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도개교(跳開橋-배가 아래로 지나갈 수 있도록 위로 들리게 된 구조의 다리)를 조작하는 일을 합니다. 어느 날 꼬마 아들이 방과 후 아빠 일터 근처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열차가 다리를 향해 달려오는데 다리는 위로 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아빠가 이를 몰랐던 건 열차가 정해진 시각보다 빨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시급히 알려려고 하지만 아빠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꼬마는 평소 보아두었던 대로 자신이 작동 레버를 당기려 시도하다가 그만 아래쪽 모터 사이로 추락하고 맙니다. 열차가 통과하도록 다리를 내릴 경우 그대로 압사당하는 위치에 떨어진 겁니다. 다리를 내리면 아들이 죽고, 그대로 두면 승객이 탄 열차가 강물로 빠질 상황. 진퇴양난의 급박한 처지에 놓인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아빠는 갈등 속에 오열하다 최후의 선택을 합니다.

다리를 내려 열차를 통과시킵니다. 아들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이를 알지 못한 승객들은 평화롭게 앉아 있습니다. 그중 한 승객이 창밖을 보다가 열차를 향해 울부짖는 남성(아버지)을 발견하고 의아한 시선으로 쳐다볼 뿐. 그러나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이 되어 가슴이 먹먹합니다. ‘아들 예수를 희생시켜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렸다고도 하고,

실화에 바탕을 두었다고도 합니다. 위원회는 언론과 사람(국민)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중재위원들은 신청인(국민)과 피신청인(언론) 간의 조정·중재 현장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설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에서 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 안타깝습니다.

일도양단의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 것이 ADR(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특성이라 해도 한쪽 또는 양쪽 모두 만족하지 못하면 중재위원으로서 과연 교량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의구심이나 죄책감이 들 때가 더러 있습니다.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의 회복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언론의 사명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신청인 84.1점, 피신청인 78.1점(2015년)이라 다소 안심되지만, 개별 만족도는 각각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피신청인보다 신청인의 종합 만족도가 더 높다는 건 언론으로 인한 피해구제라는 취지에 비춰볼 때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직 언론인들 입장에서 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불러 간다’고 표현할 정도로 썩 유쾌한(?) 일이 못 돼, 전직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피신청인 만족도가 3점 이상 상승한 것으로 위안이 됩니다.

영화 속 아버지의 사랑, 그 숭고함에는 못 미친다 해도 중재위원들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리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공정한 태도, 진솔한 자세와 경청, 겸손하면서도 품위 있는 심리 등은 모두 인간애가 깔려 있어야 가능하겠지요.

영어에서 「MOST」는 최고, 최선을 의미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지향할 상징입니다.

# 대국의 절망과 희망

리우에서 쿠리치바까지 브라질 여행

이해준 기자는 <헤럴드경제> 문화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10월 한국을 출발해 2012년 7월까지 가족과 함께 아시아에서 유럽~남미~북미로 '희망찾기 세계일주'를 펼쳤다. 현재는 <헤럴드경제> 정치부 선임기자로 일하고 있다.

## 브라질은 얼마나 위험한 국가인가

포르투갈 리스본을 떠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공항에 도착해 숙소를 찾아갈 때 택시를 이용해야 했다. 중국과 네팔, 인도에 이어 유럽을 누비던 6개월 동안 거의 타지 않은 택시였다. 아무리 오지라도 모든 호스텔이 대중교통 이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주었지만, 리우의 호스텔은 달랐다. '굳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복잡하고 위험해 추천할 만하지 않다'면서 택시를 권유했다. 세계 배낭여행의 바이블인 론리 플래닛도 리우의 치안이 불안하니 조심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해 이를 무시하기도 힘들었다.

숙소에 도착해 체크인할 때 호스텔 주인이 주변의 식당을 소개해 주면서 처음 던진 말도 '밖에 나갈 때는 항상 지갑을 조심하세요'라는 '경고'였다. 브라질에 발을 디디면서 '치안 불안'이 일상화돼 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실제로 그런 불안 요소를 만나는 건 어렵지 않았다. 심지어 리우 시



'구원자 예수상', 리우 서쪽 코르코바도 산에 있어 시내 어디서나 보이며, 리우의 아이콘이다.

내 중심부와 그리 멀지 않은 산타 테레사 지역의 호스텔에서 아침에 길거리로 나가면 노숙하는 사람, 아침부터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상파울루 도심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대성당과 인근 지하철역 등에는 노숙자인지 부랑인들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몰려 있어 긴장해야 했다.

하지만 리우에서 상파울루, 쿠리치바를 거쳐 이구아수 폭포까지 브라질 동남부를 여행하면서 한 번도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 오히려 초행길에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 헛갈리지 않고 길을 찾아가고 버스를 탈 수 있었다. 사람들은 낙천적이었고 친절했다. 나중에는 같은 버스에 탄 사람이나 주변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며 소지품이 잘 있는지 확인하는 내가 머쓱해졌다.

세계 어느 곳이든 고정관념 또는 편견이 있겠지만, 브라질, 특히 리우나 상파울루 같은 대도시의 경우 그 편견이 가장 심한 곳 중 하나다. 물론 통계적으로 범죄율이나 빈곤층 비율이 높은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들이 있을 것이고, 리우나 상파울루는 '불안한' 도시로 꼽힐 수 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행을 포기하기엔 브라질의 매력이 지나치게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괴물 도시' 리우와 상파울루의 두 얼굴

브라질의 양대 도시인 리우와 상파울루는 한 마디로 표현하기 힘든 다양성과 복잡성이 뒤엉켜 있고, 그것이 때로는 혼돈스럽기까지 한 '괴물(monster)'과 같은 도시다. 인구가 2억을 넘어 세계 5위, 경제규모는 세계 7~8위에 이르는 중남미의 맹주지만, 빈부 격차가 세계 최고이며, 한편에서는 세계 최대의 '카니발' 광란의 축제가 벌어지는 브라질 사회의 축소판이다. 리우와 상파울루를 여행하는 진짜 맛은 그 이색적인 다양성 속에 몸을 담고 느끼는 것이다.

사실상의 수도인 리우는 세계 3대 미항인 리우 항을 비롯해 볼거리가 즐비하다. 리우 시내 서쪽의 코르코바도 산 704m 언덕에 있는 '구원자 예수상'은 시내와 항구, 대서양을 조망할 수 있는 리우의 아이콘이다. 예수상처럼 팔을 벌리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항상 북새통을 이루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예수상이 생각보다 커서 고개를 완전히 뒤로 꺾고 바라보아야만 한다.

앞바다에는 고깔처럼 생긴 멋진 섬이 하나 있다. 영어로 슈거 로

프(Sugar loaf)라고 하는 설탕봉이다. 리우가 설탕 수출로 흥성이던 16~17세기 설탕을 배에 싣기 편리하도록 원뿔형의 덩어리로 만들었는데, 섬 모습이 이걸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봉우리에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해가 질 때 붉게 물들어가는 시내와 멀리 언덕 위의 예수상을 바라보는 것은 일품이다. 석양 무렵엔 아베크족도 넘쳐 곳곳에서 포옹하고 입을 맞춘다.

이외에도 리우에는 명물들이 많지만,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맛은 끝없이 펼쳐진 해변이다. 세계에서 가장 길고 아름답다는 코파카바나 해변을 비롯해 이파네마 해변 등 해변이 이어져 있다. 강렬한 태양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파도가 일렁이는 가운데 백사장엔 항상 사람들로 붐빈다. 그 풍경도 아름답지만, 세상사를 잊게 하는 묘한 분위기가 흘러넘친다. 저 괴물 도시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슬픔과 절망, 처참함을 한꺼번에 날려버리고, 이글거리는 태양처럼 뜨거운 열정을 갖게 만드는 곳이 바로 리우의 해변이다.

리우에서 버스로 5~6시간 정도 걸리는 남반구 최대 도시 상파울루 역시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난해한 도시다. 파울리스타 거리는 브라질 경제 및 금융 중심지로 도시적 낭만이 넘친다. 루츠역과 상벤토역, 세역을 중심으로 한 센트로에는 1960년대 지어진 독특한 건물들이 즐비하고, 박물관과 미술관 등이 물려 있다. 복잡하기가 이를 데 없지만, 남미 특유의 낙천성과 여유가 넘친다. 도시 곳곳엔 극심한 빈부 격차가 빚어내는 절망의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다.

상파울루는 도시 인구가 1200만 명, 인근 지역을 포함한 인구가 1900만 명에 달한다. 거기에는 수준급의 박물관과 문화센터가 110개, 실험적인 극장과 공연장이 400개를 넘으며 세계적 수준의 레스토랑이 1만 2500개에 이른다. 여기에 1만 5000개에 달하는 대중적인 펍에선 매일 저녁 흥겨운 파티가 열린다. 상파울루 사람들이 폭력과 혼잡, 매연에 진저리를 치면서도 여기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다양성과 경제적 기회 때문이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그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삶을 즐기고 있다. 그게 바로 브라질의 매력이며, 그걸 몸으로 느끼는 것이 상파울루 여행의 참맛이다.

### 쿠리치바에서 찾은 브라질의 희망

리우와 상파울루에서 브라질의 다양성과 잠재력, 낙천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지만, 희망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상파울루에서 남서쪽으로 400km 정도 떨어진 쿠리치바에서 드디어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인구가 170만 명으로 브라질에서 여덟 번째로 큰 도시지만, 친환경 도시설계의 모범으로 꼽히며 '세계의 환경수도'라는 별명을 얻고 있는 도시다.

브라질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며 도시 문제가 폭발해 수도를 리우



코파카바나 해변. 항상 사람들로 붐비며, 세상사의 시름을 잊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다.

에서 브라질리아로 이전하던 1960년대, 쿠리치바는 친환경 도시개발에 착수해 도시 모습을 완전히 바꾸었다. 시내를 물론 외곽 곳곳에 공원을 조성해 1인당 녹지면적이 노르웨이 오슬로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며, 간선도로와 지선을 연결하는 독특한 교통시스템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교통난을 해결했다. 이곳의 급행간선버스(BRT) 시스템은 서울 중앙차로제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빈곤과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브라질에 이런 멋진 도시가 있다는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의 의지와 실천이 모인다면, 국가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관계없이 사회를 바꿀 수 있음을 쿠리치바는 보여주고 있었다. 바로 그것이 흔들리는 남미의 대국 브라질에서 확인한 진실,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오는 8월 열리는 브라질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지카 바이러스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가지지 않고 있다. 어쩌면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브라질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보다는 부정적 인식을 더 심어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작은 사고라도 하나 나면 브라질에 대한 이미지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편 그런 인식을 한다고 해도 사실에서 크게 빛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브라질은 그만큼 취약한 측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정반대로 역동성과 건강성, 특유의 낙천성, 친근함과 낭만을 가진 나라다. 브라질을 가보지 않고 부정적 인식만 갖는다면 그건 개인의 손실일 것이다. 이번 올림픽이 균형 잡힌 인식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COMMISSIONERS 위원동정

### ·국제컨퍼런스 참석(CA)

위원회 중재위원이 6월 9일(목)~6월 13일 (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제66회 ICA(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국제커뮤니케이션 학회)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커뮤니케이션과 권력>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위원회에서는 박인식 중재부장(서울3중재부), 홍은희 중재위원(서울1중재부), 한석동 중재위원(서울3중재부)이 참석했다.

###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학술상 수상

5월 10일 지성우 위원(서울제1중재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사)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학술세미나에서 국내에 최초로 '잊힐 권리'를 소개하고 법제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술상을 수상했다.

## NEWS 위원회 소식

# MEDIA LAW FORUM 개최



위원회는 6월 16일(목) 미국, 영국, 한국 등 국내외 저명 언론 학자들을 초청하여 Media Law Forum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의 첫 번째 발표자인 미국 루이지애

나 주립대 언론법과 민주주의 프로젝트의 공동디렉터인 에릭 로빈슨 교수는 <소셜 미디어 법 : 미국 vs 세계>라는 주제 발표에서 미국은 수정헌법 1조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프라이버시, 문화적 민감성, 예술적인 권리라는 세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 발표했다. 잊힐 권리나 슈퍼인정선(사생활 보도 금지명령)에 대해 유럽연합(EU) 등 국제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시각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영국 런던대학교 정보법과 정책 센터의 디렉터인 주디스 타운엔드 교수는 <사자 길들이기와 고양이 물기 : 영국 미디어 규제 도전>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대규모 자본이 소유한 가대 언론사를 '사자에, 지역 뉴스 블로그나

소규모 웹사이트 등 소형 언론사를 '고양이'에, 인터넷 중개자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를 '차타'에 비유하며 영국 내 언론규제 논의를 흥미롭게 전달했다.

미국 네바다대학교 저널리즘과 고등언론연구센터의 학장인 알타비트스키 교수는 세 번째 발제에서 <미국 공영방송 정책에 미치는 네이티브 디지털 뉴스의 영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미국에서는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산업이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네이티브 디지털 뉴스(Native Digital News)"라는 새로운 부문이 출현했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유세경 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은 <한국의 언론피해구제시스템>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언론조정·중재제도와 조정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기사삭제청구권 도입과 댓글과 펄클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 유사 뉴스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 마련 등 언론조정·중재제도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이날 포럼은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 이후에는 영규호 미국 오리건대학교 저널리즘스쿨 석좌교수,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등이 참여한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 ·'2015년도 언론관련 판결 분석보고서' 발간

'2015년도 언론관련 판결분석보고서'가 6월 30일 발간됐다. 보고서에는 2015년 한 해 동안 각급 법원이 선고한 언론관련 판결 215건에 대한 통계분석과 주요 판결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 ·계간 '언론중재', 2016년 여름호 발간

위원회 계간지 '언론중재' 여름호(통권 139호)가 6월 30일 발간됐다. <Focus on Media> 섹션에는 '최근 인권권 관련 판결이 던지는 몇 가지 질문'이라는 주제로 '비선형 미디어 시대, 피해구제 어떻게 해야 하나' 등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 ·사무처 인사(2016. 7. 1.자)

▲승진 (1급) 교육본부장 조남태

▲전보 심리본부장 심영진, 운영본부장 권오근, 감사실장 이진숙, 조사팀장 정희성, 교육콘텐츠팀장 손정배, 홍보팀장 양재규, 예산회계팀장 강현석, 경납사무소장 이홍길

부정확한 프라이버시 침해 보도,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결정

01

A 방송사, B 방송사는 이혼 소송 중인 신청인이 사람을 고용하여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청구사실을 시도한 바가 없고 소송 중인 사안에 관해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며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A 방송사와 B 방송사는 각각 조정대상 보도가 판결문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정심리 결과, 중재부는 각 조정대상 보도가 이혼 소송 1심 및 2심 판결문 등에 기반하였으나 판결문에는 신청인이 남편에 대한 살인을 교사했다는 어떤 이의 진술 및 주장이 있을 뿐 신청인이 살인교사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보도라는 점 등을 들어 A 방송사에는 반론보도와 기사삭제 및 손해배상금 100만 원 지급, B 방송사에는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금 300만 원 지급의 내용으로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이에 방송사 A와 신청인은 동의하여 결정이 최종 확정됐으며, 방송사 B는 반론 및 사과보도를 방송하고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여 사건이 취하되었다.

왜곡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및 성명권 침해,  
손해배상으로 조정성립

02

C 방송사는 보육교사인 신청인이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박치기를 시켜 아이의 이마에 멍이 들었으며 학부모에게 "훈육은 해도 체벌은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아이들에게 박치기를 시킨 바 없고, 메시지는 박치기 논란 사건이 발생하기 약 6개월 전 메시지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C 방송사는 조정대상 보도가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는 공익적인 보도였고, 신청인의 실명을 노출한 실수는 인정하나 박치기를 시킨 것은 경찰 조사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조정심리 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해당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점, 아이의 멍이 어떤 원인으로 생긴 것인지 피신청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점, 메시지는 박치기 논란 사건과 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이번 박치기 논란 사건에 대해 신청인이 해명하는 듯 편집된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신청인이 손해배상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신청인에 관한 내용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신청인의 동의 없이 촬영·보도한  
방송, 기사수정 및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직권조정결정

03

D 방송사는 신청인이 현 옷을 명품으로 속여 비싸게 팔고, 이웃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으며, 돈을 달라는 이웃에게 쇠막대기로 위협하거나 폭언을 퍼부었다는 내용을 방송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취재나 방송에 대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위와 같이 보도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D 방송사는 유사 피해를 막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방송을 제작하였고, 제보자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확인 취재하였으며, 신청인에게 기획 의도를 설명한 후 촬영 및 방송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정심리 결과, 중재부는 D 방송사가 신청인의 초상 사용에 대해 제대로 동의를 얻지 못했고, 신청인의 초상 및 일터를 방송할 필연성이나 긴급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방송사 홈페이지의 예고문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직권조정결정을 내렸으며,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공감블로그 속 『△ 언론 & 사람』 6월호 100자평



김석준 님

[인터뷰] 지면에서 한국여기자협회장의 “여기자, 남기자가 있지만 취재영역과 취재기사에는 남녀구분이 없다”는 말씀 인상 깊었습니다. 편견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서우 님

[언론법 이모저모] <혐오표현> 글과 같이,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관용의 정신은 설 자리를 잃고 혐오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증오의 싹대질 대신 포용의 포용을 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선아 님

[여행수첩] 인도 콜카타 여행을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식도락이나 관광 여행이 아닌, 봉사과 나눔을 실천하는 보람된 여행이라 더 눈길이 갔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공감블로그(<http://pacblog.kr>) 『△ 언론 & 사람』 7월호 발간 이벤트 페이지에서 소감이나 의견을 7월 20일(수)까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감되는 100자평을 남겨주신 분 중 3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기프트콘(2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 미디어와 인격권 제2권

## 일반 연구논문 공모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2015년 <미디어와 인격권>을 창간, 디지털시대 언론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향을 다룬 기획논문 등 총 8편의 논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미디어와 인격권> 제2권에 수록할 일반 연구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열정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연구주제**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윤리, 미디어법제 등 <미디어와 인격권>의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

**응모자격** 언론학 및 법학 관련 학회 회원, 관련분야의 전문가자격증 소지자 및 종사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원고마감** 2016년 8월 16일(화)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최대 180매)

**논문접수** 이메일 접수(journal@pac.or.kr)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가 최종 확정된 논문은 원고료(200만 원)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참조하시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02)397-3042로 문의 바랍니다.